

“도마다 발굴전담기구 만들자”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회고와 전망’ 서 제기

발굴신고제·대학중심 발굴 탈피 ‘한목소리’

“행행 법률은 주로 문화재 발굴 규제 및 발굴시의 처리방법에만 국한돼 있을 뿐 매장문화재의 사전조사, 사후관리 및 보존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애매모호한 매장문화재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영향평가제와 매장문화재보호지역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발굴전 사전조사 등을 의무화하자.”

지난 10·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매장문화재 발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한 학술대회에서 홍준영교수(서울대) 등 대부분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다른 행정분야의 법률에 종속돼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유실물법 등 매장문화재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굴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길연구원(경남대 박물관)은 “구제발굴의 전위부대로 좌충우돌하는 대학의 현실과 맞선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온 문화재 관련법규, 구제의연하면서 무계획적인 관리행정, 기록권 유지에만 급급해 점차 수렁으로 빠져드는 학계의 잘못된 관행 등이 맞물려 고고학계의 일각은 고질적인 병폐와 비리 차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는 △발굴조사시 허가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시굴조사의 활성화 △복토·수출 지구에 대한 철저한 발굴조사 △연장설명의 의무화 △대학 본연의 위치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같은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발굴 건수는 모두 1백92건. 90년대 이후 대규모의 건설사업이 폭증하고 있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나 국립박물관을 제외하곤 대부분(평균 70%이상) 전문조사인력이 1~2명에 불과한 대학박물관이 구제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선복교수(서울대)는 “대학이 대



◇매장문화재 발굴은 전문인력 1~2명에 불과한 대학박물관이 전담하고 있어 오히려 파파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

형구제 발굴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비영리 공공 발굴전담기구가 맡아야 한다”며 “각 도마다 최소한 1개씩의 발굴전담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4년 국내 최초로 발굴전담기구를 설립한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이백규원장은 “민간주도의 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나 발굴전담기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기석 기자

불심시심 <90>

웃기로 안은 만리의 바람

獨上高嶺鐵嶺山 (독상고고철령산) 높고 높은 철령산을 홀로 오르니
蒼蒼一面海門關 (창창일면해문관) 한쪽으로 푸릇푸릇 바다 문 열리다
襟前萬里長風引 (견전만리장풍인) 만리의 바람결 웃김으로 당기고
袖下千峰片月關 (수하천봉편월관) 소매 밑 천 봉우리 조각달 한가롭다
人語能傳雲漢外 (인어능전운한외) 이야기 소리 은하수 저쪽까지 전할 수 있고
手功可接斗牛間 (수공가접두우간) 지팡이도 닿을듯한 북두와 견우성 사이
更登絕頂遠遙久 (갱등절정원요구) 다시 절정에 올라 소외하다 보니
若木扶桑日可還 (약목부상일가환) 해 뜨고 지는 동과 서도 하루 길인 듯 (약목부상일가환)

이 시도 천경대사의 시이다. ‘철령의 시에 차운한다(次韻鐵嶺)’는 제목이다. 구름도 뛰어 넘는다라는 높은 철령을 노래한 것이다. 이 높은 철령을 혼자 넘어 그 탁 트인 시계를 시원하게 읊은 시이다.

높다는 말은 시계가 멀리 트인다는 말이다. 시계는 무한의 수평선이다. 수평선은 바다의 끝이다. 그러기에 이 철령도 오르자마자 눈에 드는 것이 아득히 펼쳐진 바다이다. 산에 오르면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절정에 오르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다. 이것이 바로 위 아래로 구성되는 공간에 갇힌 사람으로서의 일상적 자연스러움이다.

이 시도 이러한 자연을 구도화하였다 하겠지만, 시인의 끝 간데를 일면(一面)이라 한 공간적 형용과, 바다 끝을 만이 문이 열리다 한 시인의 트임을 첫 구로 삼음으로 하여 다음 시한 느낌이어서 더 시원하게 쓴다.

웃김은 외부와의 경계선이기에 닫으면 막힘이요 풀어헤치면 받아들임이다. 산정에 오르면 웃김을 풀어헤치면 누구에게나 지금까지의 답답함을 풀자는 의도요, 이 풀어헤침은 받아들임의 첫 신호이다. 이는 이러한 열림의 순간에 저 만리의 바람을 끌어당기고 있으니 자자의 풍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온갖 봉우리와 대낮에도 떠 있는 조각달은 소매 밑에서 한가롭다.

이렇듯 하늘에 가깝고 바다에 떠 있는 공간이니, 내 말 소리가 은하수에 전해질 듯하고 산에 오도록 도와준 지팡이는 이제 북두성을 어루만질 수 있는 갈궁이다. 모두가 높은 절정을 상징하는 시어들이지만, 작자를 중심으로 구도화한 한 편의 그림이요 자신을 우주 공간의 주인으로 미화한 느낌이다. 그러기에 해 뜨는 부상이나 해 지는 약목을 하루에 오갈 수 있다 하겠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자유자재하는 金仙魚 낚자”

이외수씨 5년만에 신작 ‘황금비늘’

장편소설 <벽오금학도> 이후 5년만에 소설가 이외수씨(시진)가 장편소설 <황금비늘>(동문선刊, 전2권)을 내놓았다.

<황금비늘>은 모든 생명체가 불로 죽음을 앞 둔 그에게서 소매치기 기술을 배운 동맹이는 진정 한 인간의 도리에 대해 하나씩 깨우쳐간다.

“소중한 것들을 방생하다 보면 천하를 방생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절로 천하를 가지는 법도 배우게 되느니라”는 무간선 할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 동맹이. “마음 안에 촛불을 환하게 켜 놓으면 누구든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란 말을 꺼 내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휠체어를 탄 장애인 김씨, 맹인 자압사 조선생 부부와 함께 살아간다. 장애인 김씨는 당대의 유명한 소매치기 범계손, 간암으



로 죽음을 앞 둔 그에게서 소매치기 기술을 배운 동맹이는 진정 한 인간의 도리에 대해 하나씩 깨우쳐간다.

김지연 기자

티벳불화 국내 첫 도록 나왔다

한빛문화재단 ‘탕카의 예술’



◇티벳불교미술의 정수 탕카(불화)중 보살상. 룩된 티벳불화의 우수성을 한층 높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한광호이사장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탕카지만, 이 도록의 발간으로 티벳불교 사상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지금껏 수집해온 불화를 비롯 불교조각, 공예품 등의 분류가 끝나는 대로 1백50경 규모(단총)의 동양박물관을 세워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

티벳 불교미술의 가장 중요한 장르인 탕카(티벳 불화)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작품해설과 함께 도록으로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빛문화재단 한광호이사장은 지난 40년간 티벳을 비롯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지에서 수집한 탕카 3백여점 중 질적으로 우수한 1백여점을 엄선·수목한 <탕카의 예술(Art of THANGKA)>을 최근 출간했다. 티벳불교 사학자인 다나카 기미야키(田中公明)교수가 작품의 선정과 해설을 맡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티벳 불교미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연례, 조사, 수호·분노존, 보살, 불모(佛母)·여보살, 호법존, 나한, 기타, 본교미술(本教美術) 등 11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불화에서도 자주 보이는 불, 보살, 나한도 및 제신상상이 있어 티벳 불교미술의 새로운 이해는 물론 양국 불교미술의 비교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티벳불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록이 한국에서 출간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특히 영국 런던대 윌트필드교수와 박영숙씨 부부가 영어판을 동시에 펴내 이 책에 수

문화 소식

25일 불미협 회원전
한국불교미술인협회(회장 박찬갑) 제4회 회원전이 오는 25일부터 7월1일까지 일주일간 인사동 덕원 갤러리 3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영화 박찬갑 강행원 손연철 진철문 이마숙씨 등 회원들의 그림 조각 등 30여 작품이 전시된다. (02)723-7771

경주 남산에 안내판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남산 삼릉 숲속에서 유적지안내판 설치와 환경정화운동을 벌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주향토사학자 윤경렬선생의 ‘경주 남산의 문화재보존과 시민운동’ 주제의 특강이 있고 삼릉 불두

없는 불상, 삼화령, 용장사지 등 5곳에 유적지 안내표지판을 설치, 제막식을 갖는다.

한편 경주일원에서 각종 유적답사와 문화강좌, 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 전시회, 등 경주를 널리 알리고 우리 고유문화의 전승보급에 앞장서는 신라문화원은 지난 17일 개원 4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0561)746-1950

이만희 강영걸의 연극축제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등 히트작을 연달아 낸 불자 극작가 이만희(43)씨가 연출가 강영걸씨와 함께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장기공연이 마련됐다.

(주)문화예술관 서울 두레가 2년 여에 걸쳐 마련하는 ‘이만희 강영걸의 연극축제’를 통해 이만희씨는 ‘돼지와 오토바이’(6월 12일부터)

를 시작으로 오는 99년 1월까지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돌아서서 떠나라’ ‘피고지고 피고지고’ ‘불 좀 꺼주세요’ 등 히트작을 잇달아 선보인다. (02)3673-2961

6회 행원문화상 공모
(재)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제6회 행원문화상을 공모한다. △역경 △문화 △예술(전통·현대) 등 3분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각 1인으로,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

대상상은 9월24일, 상금은 각 3백만원. (02)926-4377

인간문화재 초청공연
호암아트홀 초청 인간문화재 공연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매방(26일) 목계월 이은주(27일) 박병천

(28일) 성창순(29일) 씨 등이 참여, 승무, 허튼춤, 경기민요, 아리랑연극, 재석극, 북춤, 가야금병창, 춘향가 등 전통춤과 민요, 굿, 판소리 등을 선보인다. (02)751-9997

김부견씨 日서 작품전
불자화가 김부견씨가 6월16~21일 일본 오오사카시 천야화랑에서 천불천탑을 소재로 한 ‘몽(夢)’전을 갖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운주사의 신비스러운 불상과 탑을 소재로 한 5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원철스님 시집 ‘광대’
원철스님(호암사)이 시집 <광대>(북토피아 刊)를 펴냈다. 힘있는 시어구가 돋보이는 스님은 ‘광대’를 소재로 해 일상용어로서 현대를 풍자하며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승화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제2회 출판문학상 대상(시·소설)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사찰의 초입(初入口)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국락전·미륵전·관음전·영보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매우터> 동감 인쇄 •

- 매질 책맥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질 책맥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한문화원 (장충동 엠버서더호텔 옆)
-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김현준(金鉉竣)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황간 <법공양> 발행인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니?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니?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메기도법 등)

8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